

# 도시주부의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에 관한 연구

## — 결혼 5년 이내의 주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rban housewives' wedding behavior and satisfaction  
— focus on the housewives who have been married for less than five years —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이정우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김명나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Professor.* : Jeong Woo Lee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Doctoral Course* : Myung Na Kim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1)the level of the urban housewives' behavior and satisfaction of wedding, (2)the influential factors related to the two dependent variables above mentioned. So that provides some fundamental materials to improve the level of sound wedding culture and the whole home living. The subjects were 356 housewives, in April, 1997, Seoul. The data obtained were analyzed by Mean,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general tendency of the housewives' wedding behavior and satisfaction was reasonable.
- 2) According to the background variables(ie: marital form, the existance of

job, the recognition degree of her husband's family's living standards, the recognition degree of her parents' home's living standards, the perception of marital transactions), the housewives' wedding behavio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 3) According to (1)the background variables(ie: communication frequency in household, self-acceptance, the adequacy of household income, educational level), (2)intermediated variable(ie: articles essential to a marriage), the housewives' wedding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 4) The indirect variable of the positive influence for housewives' satisfaction of wedding was marital form, the existence of job. the indirect variable of the negative influence for housewives' satisfaction of wedding was the recognition degree of her husband's family's living standards, the recognition degree of her parents' home's living standards, the perception of marital transactions.

## 1. 서론

전통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에서도 혼례는 인륜지대사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산업화와 서구화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모습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혼례문화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절차나 형식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사회 전 부분에서의 커다란 변화는 우리의 혼례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일반적으로 배우자선택 → 약혼 → 합 → 결혼식 → 신혼여행 등으로 이어지는 혼인절차나 규모도 많이 변화했으며, 혼수규모의 전반적인 증대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대사회는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팽배해 있고 핵가족화가 가속화되어 혼인 또한 개인의 결합이라는 성격을 띄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체면문화와 과시문화가 주종을 이루는 혼례식에서는 의례가 지니는 본연의 의미를 뛰어넘어 주위의 눈치나 양가 집안끼리의 체면유지를 위해 과소비적인 혼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상업화, 물질만능주의의 영향을 받아 혼례절차나 구입상품에 있어서 고급화, 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여 전반적인 혼례를 간편일률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손승영, 1996). 특히 학력위주의 계급차별, 남성본위의 남녀차별, 가치관 부재의 급격한 사회변동 등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로서 이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혼수문제를 빚어내고 또 역으로 혼수문제가 이러한 갖가지 사회병폐를 심화시키는 병인(病因)으로 작용한다(정용선 외, 1995). 또한 가부장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 혼례는 약한 입장에 있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혼수준비나 의례절차 과정에서 여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특히 딸 가진 부모들이 시댁식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려는 행위들도 그 기세를 더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결혼식의 비용과다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 즉 과다혼수, 지나치게 호화로운 결혼식과 신혼여행 등이 대중매체와 시민단체를 통해 지적되고 있으나(이기춘·조은정, 1992 : 96), 지금까지의 혼례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혼례 실태(이행숙, 1982 ; 김경희, 1983 ; 손유미, 1990 ; 장은영, 1990 ; 이기춘·조은정, 1992 ;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3, 1996 ; 정용선 외, 1995 ; 장하경, 1996)나 혼례의식(이기표, 1982 ; 한경순, 1986 ; 김명나, 1989 ; 이길표·주영애, 1989 ; 유현주, 1991) 및 혼례행동(이선영, 1992 ; 김영주, 1994 ; 김모란, 1994 ; 황경애, 1994)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혼례행동과 혼례만족을 관련시킨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관리의 주체인 주부들이 혼례 준비과정과 절차 및 혼수장만에서 겪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이 크므로 결혼 5년이내의 주부 자신들의 실제 행한 혼례와 혼례 후의 만족을 비교해 보고 관련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점점 사회문제화 되어가는 혼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과다혼수나 전시효과적인 혼례를 지양하여 합리적으로 수행케 하므로써, 그 만족도를 높여 가정생활의 향상 및 건전한 혼례문화를 이룩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혼례의 의의

혼례란 혼인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의식 절차이고 사회적으로 공인된 가정 형성의 절차를 의미한다. 禮記 昏義에 「혼례란 二姓이 好合하여 위로는 종묘를 섬기고 아래로는 후손을 이어가기 때문에 군자는 이를 중히 여긴다.」<sup>1)</sup> 라고 하여 예로부터 혼례란 자녀를 낳아 대를 계승하는 것으로 여겨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러한 의미가 퇴색되어 가계계승의 뜻보다는 혼인 당사자간의 애정과 인격의 결합이며, 혼인하는 남녀 양가의 공동체적 결합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그런데 시대흐름에 따라 혼례의 의미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의례절차도 변형되어 혼례의 무규범(無規範), 물질만능주의의 팽배로 인한 외형적 허례허식, 전통혼례행례의 의미의 왜곡 및 단절, 행례의 무의식적 서구화 추종 등 헤아리기 어려운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황경애, 1994).

### 2. 혼례행동 및 혼례 만족

본 연구에서는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을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이상형의 혼례 절차인 四禮(議婚·納

采·納幣·親迎)<sup>2)</sup>에 기본을 두고 신부측을 중심으로 한 현대의 혼례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배우자선택, 약혼식, 혼수 및 함, 결혼식 및 신혼여행의 네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배우자 선택

의혼이란 배우자 선택과정으로 신랑집과 신부집이 서로 혼사(婚事)를 의논하는 절차로 전통혼례에서는 중매를 거쳐 양가의 주혼자가 주도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으며, 이 때 간선이라는 절차와 궁합이라는 관습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장하경, 1996). 즉,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혼인의 목적이 가문의 영속이나 번영을 목표로 하는 중매혼이 대부분이었고 배우자 선택권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었으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정민자, 1987 ; 홍준숙, 1987 ; 이선영, 1992 ; 김혜선·한희선, 1995). 몇몇 연구(양명숙, 1996 ; 손승영, 1996 ; 이현송·공세권, 1996)에서는 최근들어 배우자선택에 있어 많은 변화를 보여 대체로 진보적인 경향을 나타냈으나, 부모의 승낙이 여전히 중요하여 아직도 가족들의 영향을 직접·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에는 배우자선택 조건에 있어서 두사람 사이의 관심과 취미가 상통할 수 있는 비슷한 교육문화적 배경을 지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이길표, 1982), 특히 혼인당사자의 성격, 건강, 사랑, 가치, 생활력 등이 중요시 됨을 알 수 있으며 배우자선택 현상에서 한국 가족의 전통성이 많이 사라지고 개인주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정민자, 1987 ; 이선영, 1992). 배우자선택방식에 있어서는 중매결혼에서 연애혼으로 변화되고 있으며(김양희, 1990) 부부 상호간에 애정표현 등의 표현적·정서적 보상감이 부부 모두 높은 결혼만족에 이르게 된다(한국가족학

1) 「禮記」官儀 昏義 第四十四, 「婚禮者 將合二姓之好 上以宗廟以下以繼後世他 故君子 重之」

2) 중국 古禮는 六禮(納采·問名·納吉·納徵·請期·親迎)인데 비하여, 朱子家禮에는 四禮로 되어 있으며, 조선왕조에서는 주자가례를 준거로 하여 四禮便覽에서 사례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혼례는 議婚·納采·涓吉·納幣·大禮·見舅姑禮로 나누어 그 절차가 이루어졌다 (박혜인, 1988 : 20 ; 장철수, 1995 : 140).

연구회, 1993)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연애혼(자유혼)이나 절충형의 결혼형태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이정우 외, 1990).

## 2) 약혼식

전통혼례에서는 약혼의 징표로 신랑측에서 사주를 보내면(박혜인, 1988), 신부집에서는 사주단자를 받아 이에 따라 신부의 생년월일시를 참작하여 혼인날짜를 택하여 신랑측에 통지한다(장하경, 1996). 현대에는 혼례에 있어서 대도시의 중상층을 중심으로 과거에 비해 약혼식을 더 많이 치르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양가가족이 상견례를 하는 자리인 약혼식장에서는 공식적인 행사인 결혼식에서 처럼 정해진 식순을 따를 필요가 없으므로 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양가 가족과 친지들이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신랑 신부가 정혼(定婚)하였음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런데 약혼식에 대한 준비나 선호는 계층별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약혼식 비용을 신부측 부담으로 하는 관습은 결혼에 있어서의 여자 쪽의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손승영, 1995).

한국여성개발원(1986)이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약혼식에 대해 76.4%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최경숙(1995)의 연구에서도 결혼당사자들은 약혼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며, 약혼식을 행하는 경우는 대부분 결혼당사자의 의사라기보다는 양가에서 서로 눈치를 보다가 행한 것으로 약혼당사자들은 약혼식에 대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치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들어 약혼식 대신 양가 부모와 당사자만의 간단한 식사로 상견례를 하는 경우도 많아(이정우 외, 1996), 약혼식을 생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점차 호화화·거대화되어가는 약혼식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 결혼생활에는 약혼식 자체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으므로(최경숙, 1995) 남자 집에서 여자측에 약혼식을 강요하는 것을 지양하고

약혼식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다(손승영, 1996).

## 3) 혼수 및 함

### (1) 혼수

대체로 전통사회에서의 혼수는 예단, 예물의 형태로서 예의나 공경, 축복과 상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으며 현대와 같은 물질의 교환, 신분과시의 표상은 아니었다(옥선화·정민자, 1992). 즉, 전통적으로 혼인은 신부가 시집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침구와 옷가지 등만 장만해 오는 것이 통례였으며 예단도 신부가 손수 만든 수예품 정도였으나(김두현, 1980), 현대로 오면서 경제가 향상되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자 일부 계층에서 정략결혼을 하는 경우도 생기며, 이러한 경우 과다혼수를 장만하는 풍조<sup>3)</sup>도 생겨나게 되었다(이효재 외, 1991).

일반적으로 신랑의 직업이 좋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안정될수록 혼수의 양과 질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0), 이러한 혼수의 과다문제는 현대로 오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사회계층의 과다혼수 양상은 사회계층의 위화감을 조장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부자만이 아니고 중산층 까지도 모두가 비슷한 절차를 따르고 있고, 혼수의 가격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닳은 꼴로 혼례를 행하고 있으며, 혼수의 비용은 전반적으로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과다 혼수의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 혼수로 인한 가족간의 불화,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다(장은영, 1990).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0)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현재의 혼수 풍토가 불건전하다고 느끼지만 준비과정에서 본인의 욕심과 배우자 쪽의 요구 또는 체면 때문에 과다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혼수비용을 감안할 때, 빚을 지면서까지 남들이 하는 모든 격식은 다 치러야 한다는 우리의 체면문화와 합쳐진 한국인

3) 소위 '사'자 붙은 신랑이라는 유망직종 소지자에게는 '열쇠 세 개'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일부에서는 과다혼수를 요구하기도 한다(이효재 외, 1991).

모두가 앓고 있는 혼수병은 일그러진 결혼문화의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최성애, 1993).

## (2) 함

전통혼례에서는 혼인의 납폐란 신부집에 대하여 혼인을 허락한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신부용 혼수와 혼서(예장)·물목(物目)을 함에 넣어 보내는 절차로 봉채(封采=봉치) 또는 함(含)이라고 한다. 함 속에 넣는 예물은 지방마다 달랐는데 사례편람에는 「두 가지 이상을 하되, 열 가지를 넘어서는 안된다」<sup>4)</sup> 하여 지나친 사치를 방지하는 한편 정성으로 예물을 보내야 한다고 하였다. 현대의 결혼식에는 약혼식에 사주를 보내기도 하나 별도로 결혼식 전날이나 며칠 전 저녁에 보내기도 하며, 함 속에는 채단은 물론 여러가지 예물을 넣는데 형식은 전통예절의 납폐형식을 취하고 있다(김옥희 외, 1995). 현대에 와서 함팔기는 약간 변형된 신랑친구들의 놀이마당으로 동네에 한바탕 웃음을 선사해 주는 행사인데, 이러한 함팔기 놀이는 우리의 민속행사가 살아있다는 고유문화보존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갈수록 함값이 높아지고 또한 신랑친구들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등 폐단이 커짐에 따라 실속있는 젊은이들은 함팔기를 생략하고 신랑이 직접 예물을 신부집에 들고 와서 전해주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손승영, 1995).

## 4) 결혼식 및 신혼여행

### (1) 결혼식

전통혼례에서는 신랑이 친히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해 온다는 뜻으로 친영<sup>5)</sup>이라 했으나 오늘날은 대례(大禮) 또는 결혼식(혼인식)이라 한다(이정우 외, 1996). 즉, 친영은 전통혼례를 행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행사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신부집에 가서 대례를 올리고 신방을

치른 후 신부를 신랑집에 데려오기까지의 과정이다(장하경, 1996). 우리 나라에서는 본래 여가(女家)에서의 잔치가 혼인의례의 중심을 이루었던 오랜 역사를 지녔으나 일제시대 이후 다과를 내는 피로연으로 인해 '잔치'라는 용어는 '피로연'이라는 용어로 바뀌고 형태도 오늘날의 음식집 피로연으로 탈바꿈되었다(박혜인, 1991).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가정의례준칙의 강화로 하객들에게 답례품을 나눠주는 사례들이 많았으나,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음식을 대접하는 풍습이 되살아나서 최근까지 대부분의 결혼식장에서는 하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화려한 피로연을 마련하여서 피로연 경비로 과다지출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손승영, 1995). 현대에는 예식의 장소가 예식장이나 호텔 등 예식전문기관과 교회나 성당에서 거의 결혼식이 행해지고 있는데, 1930년대에 출현한 예식장은 일본문화와 서양문화를 혼합하여서 신식 혼례식을 만들어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박혜인, 1991). 오늘날 예식장은 장소대역로서 뿐만 아니라 부대시설을 이용하게 하여서 이중삼중으로 이윤을 올리고 있는 실정(조선일보, 1994.4.4)이며, 판에 박힌 결혼식(중앙일보, 1996.3.20)이 상품을 찍어 내듯이 정해진 시간 내에 혈레벌떡 행해지는 것이 오늘의 결혼풍속도인데, 예식을 치르는 것이 새로 탄생된 신혼부부에 대한 축하의 의미보다는 상업화되고 상품화된 절차를 따르고 있는 듯한 느낌 또한 부인할 수 없다.

### (2) 신혼여행

전통혼례에서는 없던 행사로 신혼여행은 신랑 신부 두 사람에게 정서적·정신적·성적으로 가깝게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하며, 여행장소는 두 사람이 충분히 즐겁게 보내고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되 자신의 형편에 맞게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정우 외, 1996). 신혼

4) 「四禮便覽」 券之二 昏禮, 「少不過兩多不踰十」

5) 중국에서의 혼례식은 신랑이 신부를 親迎하여 男家에 와서 올리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한국의 혼인관행에서는 壻留 婦家婚俗의 지속으로 인하여 친영절차가 행하여지지 않았으며, 전안례·교배례·함근례와 같은 혼인의례의 핵심적인 절차가 女家에서 이루어졌다(박혜인, 1988 : 26-113).

여행지로는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제주도나 설악산 등을 택하였으나 최근에는 해외로 다녀오는 경우도 많아졌으며, 실속과 신세대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안정남, 1990).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조사(1993, 1996)에 따르면 신혼여행은 3박4일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으며('96년 → 41.0%), 소득수준의 향상 및 해외여행 자유화 등으로 해외여행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고('90년 5.8% → '96년 45.4%), 여행경비로는 50-100만원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100만원 이상도 21.6%를 차지하였는데(이현송·배화옥, 1996), 이기춘·조은정(1992)의 연구에서도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중 신혼여행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례만족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에서 결혼식에 대한 행동이 근대적일수록 만족도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혼례행동과 만족간에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관련변인 고찰

#### 1) 학력

학력이 다른 혼례행동을 살펴볼 때, 혼례행례는 학력이 낮을수록 전통의식을 따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길표·주영애, 1989), 궁합의 필요성에 대해 학력이 낮을수록 궁합이 '필요하다'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이선영, 1992).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연애결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양희, 1990), 배우자선택과정에 있어 교육수준의 상승이 혼인당사자의 자율성 증가에 기여한 요인으로 밝혀졌다(이현송·공세권, 1996). 이행숙(1982)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겠다'에 높은 반응을 나타냈고, 학력이 낮을수록 '예단을 안 하겠다'에 높은 반응을 나타냈으며, 박민자(1991)의 연구에서도 배운 사람들이 과다혼수의 주범이며, 경제적 여유로 많은 교육을 받은 집단이 혼수에 더 많은 지출을 한다고 했다. 여러 연구결과(장은영, 1990; 박민자, 1991; 이기춘·조은정, 1992;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3, 1996; 김모란, 1994; 정용선 등,

1995)에서 신부의 혼수규모는 신랑 및 신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기춘·조은정(1992)의 연구에서는 결혼비용 마련에 대한 부모 의존도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식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직업

혼례에 대한 의식은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근대적으로 나타났으나(김명나, 1989), 결혼식에 대한 행동은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전통적으로 나타났으며(이정우·김명나, 1993), 결혼 전 혼수 준비, 자신이 사용할 생활용품 마련보다 예단 장만 등에 더욱 신경쓰였거나 감정적으로 조바심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비취업여성인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옥선화·정민자, 1992). 소비자시대(1990)에서 조사한 바로는 비취업여성인 경우에 자신의 처지에 비해 혼수를 과다하게 마련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손승영(1996)의 연구에서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이 혼수 준비나 집 마련 때문에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현주(1991)의 연구에서는 미혼남성의 대부분이 신혼여행지는 국내를 선호하나, 사무관련직, 전문기술직, 대학생들은 국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사회경제적 지위

혼례에 있어서 특히 고위층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 준비과정에서 사돈끼리 가문의 명예 살리기인 혼수 전쟁에 돌입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으며(손승영, 1996), 여러 연구결과(박민자, 1991; 박숙자, 1991; 이기춘·조은정, 1992; 최경숙, 1995; 손승영, 1995, 1996;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6)에서 보여주듯이 자녀들이 주로 많이 부모에 의존하여 결혼비용마련을 하면서도 과다한 결혼비용은 중산층 이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인식할 때, 이는 경제력이 부모세대로부터 신혼부부에게로 이동됨을 시사하며,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정용선 등(1995)의 연구에 의하면 신랑

신부 모두 부모의 경제수준이 혼수규모에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유현주(1991)의 연구에서는 월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식을 화려하게 치루겠다는 경향이 높고, 약혼식은 월소득이 낮을수록 결혼전 꼭 필요한 절차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많은 연구결과(이광자, 1990 ;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0, 1993 ; 김모란, 1994)에서 나타났듯이 특수계층에서의 혼수문제가 일부 보고와 같이 신부측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호화혼수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4) 결혼형태

결혼전 여성이 혼수준비서, 중매결혼인 경우 더 혼수를 과다하게 마련하는 경향을 보였으며(소비자시대, 1990 ; 옥선화, 정민자, 1992 ;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3 ; 김모란, 1994), 연애결혼인 집단에서 예단보다는 남편예물과 가전제품을 많이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은영, 1990). 안정남(1991)의 연구에서는 약혼식이 신부측의 경비 부담으로 이루어지는데도, 오히려 여자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약혼식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매결혼의 경우 특히 약혼식을 중시했다. 이선영(1992)의 연구에서 궁합의 필요성에 대해 연애혼인 경우는 궁합이 '굳이 필요치 않다'에, 중매혼인 경우는 '필요하다'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폐백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부모, 친척, 친정부모'에게 폐백을 드리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중매혼인 경우에만 '시부모와 친척'에게 폐백을 드린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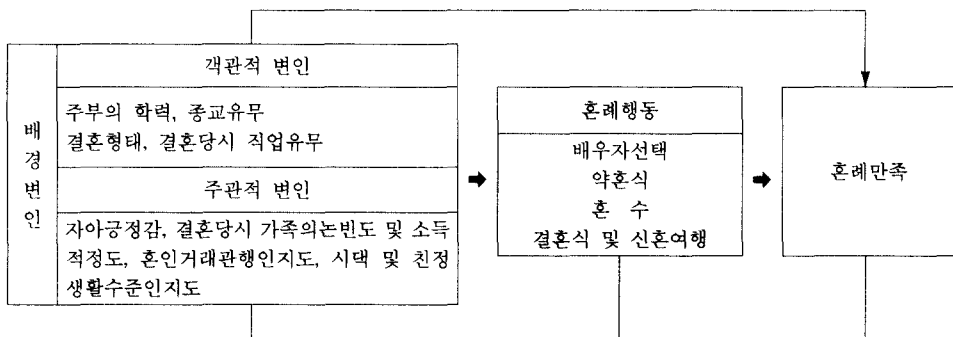
5) 종교

종교에 따른 궁합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볼 때, 불교인 경우 주로 '필요하다'고 한 반면, 기독교인 경우는 '굳이 필요치 않다'고 하여 종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폐백을 드리는 범위에 대해서는 불교집단이 아닌 경우에 친정부모에게도 폐백을 드린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이선영, 1992), 이길표(1982)의 연구에서는 폐백례 때 절은 기독교층에서 신랑과 신부가 같이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나(1989)의 연구에서는 혼례에 대한 행동이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손유미(1990)의 연구에서는 불교집단이 기독교·천주교집단에 비해, 무종교집단이 기독교집단에 비해 전통적이었다. 또한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에서는 결혼식에 대한 행동에서 기독교·불교집단이 무종교집단에 비해 근대적으로 나타나 연구결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밖에 자아긍정감, 가족의 논빈도 및 혼인거래관행인지도가 혼례행동이나 혼례만족과 관련된 연구는 없었으나 혼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배경변인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설정

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문제

- 〈연구문제1〉 주부의 배경변인은 혼례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 〈연구문제2〉 주부의 배경변인은 혼례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 〈연구문제3〉 주부의 배경변인, 혼례행동은 혼례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 〈연구문제4〉 주부의 배경변인,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 2. 조사도구 선정

### 1) 배경변인

배경변인은 조사대상자의 객관적 특성과 주관적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영향변인으로 고려된 학력, 종교유무, 결혼형태, 결혼당시 직업유무, 자아긍정감, 결혼당시 가족의존빈도 및 소득적정도, 혼인거래관행인지도, 시댁 및 친정 생활수준인지도로 구성되었다. 자아긍정감은 손현숙(1991), 박은령(1992) 등의 연구를 기초로 도덕적 자아(4문항), 성격적 자아(8문항), 가정적 자아(3문항), 사회적 자아(3문항) 등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신뢰도  $\alpha=.81$ ), 자아긍정감이란 “자기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고 가치있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있게 행동하는 것”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긍정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가족의존빈도는 이정우·안동선(1989), 하상희(1994), 이명숙(1995) 등의 연구를 기초로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신뢰도  $\alpha=.81$ ), 의, 식, 주, 경제, 집안행사, 생활태도 등의 가정생활영역에서 가족들이 의존하는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생활영역에서 의존하는 빈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소득적정도는 Sumarwan과 Hira(1993), 박미금(1993), 이명숙(1995) 등의 연구를 기초로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신뢰도  $\alpha=.77$ ), 자신의 소득과 생활수준에 대한 문항으로 소득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또한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에 관한 내용이

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득이나 생활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혼인거래관행인지도는 박민자(1991), 김모란(1994), 최경숙(1995), 정용선 등(1995)의 연구를 기초로 Homans의 교환이론 중 분배정의이론을 택하여 혼인거래관행상 교환관계에서 「신랑, 신부의 직업, 학벌, 능력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즉 서로간에 교환관계에 부여하는 투자량이 클수록 물질적 보상이 증가한다」는 가설하에 검증된 10문항을 선정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구성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혼인거래관행인지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신뢰도  $\alpha=.97$ ). 시댁 및 친정생활수준인지도는 주부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시댁 및 친정의 경제생활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김모란(1994), 하상희(1994)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下 1점에서 上 10점까지 10점 리커트척도로 각각 1문항씩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시댁과 친정생활수준을 인지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 2) 혼례행동

혼례행동은 전통 혼례절차를 토대로 하고, 박혜인(1989, 1991), 김명나(1989), 유현주(1991), 이선영(1992), 이정우·김명나(1993), 최경숙(1995) 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현대 혼례절차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으로, 배우자선택에서부터 결혼식에 이르기까지의 혼례행동을 나타낸 것이며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신뢰도  $\alpha=.85$ ).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선택은 배우자선택의 주제 및 배우자선택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신뢰도  $\alpha=.67$ ). 약혼식은 넓은 의미로 결혼식 전에 양가가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도 포함시켰으며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신뢰도  $\alpha=.74$ ). 혼수는 “혼인에 드는 비용이나 물건을 총칭”하는 것으로 혼수에는 시댁예단, 배우자예물, 신혼부부 가재도구 및 생활용품 등을 포함시켰고, 이밖에 예단음식이나 폐백음식 등도 결혼식 전에 신부측에서 준비하는 것이므로 혼수에 포함시켰으며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신뢰도  $\alpha=.78$ ). 결혼식 및 신혼여행에서는 결혼식 당일 이루어지는 행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혼여행도 결혼식 당일에 가



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기에 포함시켰으며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신뢰도  $\alpha=.78$ ). 이상의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혼례행동이 합리적인 것을 나타낸다.

3) 혼례만족

혼례만족은 “혼례행동 후에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혼례행동과 마찬가지로 혼례절차를 기초로 하고 장은영(1990), 이정우·김명나(1993), 최경숙(1995) 등의 연구를 참고로 했다. 즉 배우자선택, 약혼식, 혼수 및 함, 결혼식 및 신혼여행 등, 혼례행동후의 만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총 13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신뢰도  $\alpha=.91$ ),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혼례만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함에 관한 것은 신랑측에서 준비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혼례행동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함값지출 등 함을 받는 것은 신부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혼례만족에는 포함시켜 조사도구를 구성했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한지 5년이내의 주부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는 혼례를 치른 후 너무 오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차를 되도록 줄이기 위해서였다. 예비조사는 1997년 3월 3일부터 3월 12일까지 20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그 중 178부를 분석하여 미비한 것을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1997년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했으며 400부를 배부하여 총 356부를 회수했으며, 그 중 기재가 미흡한 31부를 제외한 32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자료처리는 SPSS/PC+ 를 이용하여, 요인분석·Cronbach'  $\alpha$  · 평균· 표준편차·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25)							
변 인	빈 도	백분율		변 인	빈 도	백분율	
		고 졸 ( 중 퇴 )	75			23.1	결혼 형태
전문대졸( )	52	16.0	중매혼	131	40.3		
대 졸 ( )	175	53.8		유	168	51.7	
대학원졸( )	23	7.1	직업	무	157	48.3	
종교	유	204		62.8			
	무	121	37.2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척도의 범위	
자 아 긍 정 감				3.69	.37	1-5	
가 족 의 논 빈 도				3.71	.53	1-5	
소 득 적 정 도				3.18	.52	1-5	
혼인거래관행인지도				2.02	.83	1-5	
시택생활수준인지도				5.24	1.66	1-10	
친정생활수준인지도				5.67	1.55	1-10	

2. 도시주부의 혼례행동, 혼례만족의 일반적 경향

도시주부의 혼례행동, 혼례만족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혼례행동은 5점에서 1점의 범위를 갖

<표 2> 혼례행동, 혼례만족의 일반적 경향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척도의 범위
혼례행동	배 우 자 선택	4.34	.68	1-5
	약 혼 식	4.36	1.02	1-5
	혼 수	3.61	.08	1-5
	결혼식및신혼여행	3.97	.84	1-5
	전 체	3.98	.61	1-5
혼례만족		3.69	.56	1-5

는데, 혼례행동의 전체 평균은 3.98점으로 중간점 이상이어서 비교적 합리적인 혼례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배우자선택의 평균은 4.34점이고, 약혼식의 평균은 4.36점으로 중간점을 훨씬 상회하여 매우 합리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수의 평균은 3.61점이고, 결혼식 및 신혼여행의 평균은 3.97으로 중간점을 상회하여 비교적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결과(장은영, 1990 ; 김모란, 1994 ; 최경숙, 1995)에서는 혼수장만이나 결혼준비 등에 있어서 과소비적 경향을 보였는데, 본 조사대상자들은 전반적인 혼례행동이 매우 합리적임을 알 수 있어 이들이 앞으로 자녀들을 결혼시킬 당사자들임을 감안해 볼 때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혼례만족은 5점에서 1점의 범위를 가지며, 평균은 3.69점으로 중간점을 상회하여 비교적 혼례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주부의 결혼식에 대한 만족도가 근대적인 경향을 보인 이정우·김명나(199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3. 도시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혼례행동

도시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혼례행동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전체 혼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형태( $\beta=.22$ ), 직업유무( $\beta=.10$ ), 시대생활수준인지도( $\beta=-.29$ ), 친정생활수준인지도( $\beta=-.17$ ), 혼인거래관행인지도( $\beta=-.27$ )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량은 전체 변량 중 28.7%를 설명하고 있다. 즉 연애혼을 하고, 결혼당시 직업이 있으며, 혼인거래관행인지도가 낮은 주부일수록 더 합리적인 혼례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대 및 친정생활수준인지도가 낮은 주부일수록 더 합리적인 혼례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층에서 배우자 예물이나 시대 예단 장만 등 결혼비용을 많이 들인 것으로 나타난 여러 연구결과(이기춘·조은정, 1992 ; 최경숙, 1995 ; 손승영, 1995, 1996 ;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6 등)를 입증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배우자선택에서는 종교

<표 3> 배경변인에 따른 혼례행동

독립변인	종속변인		배우자선택		약혼식		혼 수		결혼식 및 신혼여행		전 체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학 력									-.06	-.13		
종 교 유 무	.22	.16										
결 혼 형 태	.46	.34					.34	.20			.27	.22
직 업 유 무			.30	.15	.22	.13					.12	.10
시 대 생활수준인지도	-.11	-.28	-.15	-.24	-.10	-.19	-.11	-.22	-.11	-.22	-.11	-.29
친 정 생활수준인지도							-.10	-.18			-.07	-.17
자 아 긍 정 감	.25	.14										
소 득 적 정 도									-.24	-.15		
혼 인 거 래 관 행 인 지 도	-.19	-.23	-.17	-.14	-.23	-.22	-.22	-.21	-.22	-.21	-.21	-.27
상 수	3.97		5.35		4.83		6.66		5.13			
Adjusted R <sup>2</sup>	.2921		.0898		.2009		.1652		.2866			
F Ratio	25.75***		10.80***		15.84***		15.85***		24.63***			
Durbin-Waston Test	1.97		2.15		2.11		1.84		1.93			

\*\*\*p < .001

\* 더미변수(dummy var.) 처리 → 종 교 : 유 = 1, 무 = 0  
 결혼형태 : 연애혼 = 1, 중매혼 = 0  
 직 업 : 유 = 1, 무 = 0

유무( $\beta=.16$ ), 결혼형태( $\beta=.34$ ), 시대생활수준인지도( $\beta=-.28$ ), 자아긍정감( $\beta=.14$ ), 혼인거래관행인지도( $\beta=-.23$ )가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9.2%였다. 즉 종교가 있으며, 연애혼을 하고, 자아긍정감이 높으며, 시대생활수준인지도 및 혼인거래관행인지도가 낮은 주부일수록 합리적인 배우자선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약혼식에서는 직업유무( $\beta=.15$ ), 시대생활수준인지도( $\beta=-.24$ ), 혼인거래관행인지도( $\beta=-.14$ )가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9.0%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즉 직업이 있고, 시대생활수준인지도가 낮으며, 혼인거래관행인지도가 낮은 주부일수록 약혼식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수에서는 결혼형태( $\beta=.20$ ), 직업유무( $\beta=.13$ ), 시대생활수준인지도( $\beta=-.19$ ), 친정생활수준인지도( $\beta=-.18$ ), 혼인거래관행인지도( $\beta=-.22$ )가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0.1%였다. 즉 연애혼을 하고 결혼당시 취업한 주부일수록 합리적인 혼수 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매결혼이나 비취업여성인 경우 혼수를 과다하게 마련하는 경향을 보인 몇몇 연구결과(소비자시대, 1990 ; 옥선화·정민자, 1992)와 일치한다. 또한 시대 및 친정생활수준인지도가 낮고 혼인거래관행인지도가 낮은 주부일수록 혼수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식 및 신혼여행에서는 학력( $\beta=-.13$ ), 시대생활수준인지도( $\beta=-.22$ ), 소득적정도( $\beta=-.15$ ), 혼인거래관행인지도( $\beta=-.21$ )가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6.5%였다. 즉 학력, 시대생활수준인지도, 소득적정도 및 혼인거래관행인지도가 낮을수록 결혼식 및 신혼여행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도시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혼례만족

도시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혼례만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의논빈도( $\beta=.23$ ), 소득적정도( $\beta=.17$ ), 자아긍정감( $\beta=.19$ ), 결혼형태( $\beta=.13$ ), 직업유무( $\beta=.11$ )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전체 변량 중 21%를 설명하고 있다. 즉 결혼당시 가족의논빈도 및 소득적정도가 높으며, 자아긍정감이 높을수록 혼례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애혼을 하고, 직업이 있을수록 혼례만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혼례행동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 연애혼을 하고 결혼당시 취업한 주부가 혼례행동을 합리적으로 하며, 혼례 후의 만족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어 결혼형태와 직업유무가 도시주부의 혼례행동과 혼례만족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

<표 4> 배경변인에 따른 혼례만족

독립변인	혼례만족		설명력과 유의도
	b	$\beta$	
가족의논빈도	.24	.23	Adjusted R <sup>2</sup> =.2100 F Ratio=16.69*** Durbin-Waston test=1.98
소득적정도	.18	.17	
자아긍정감	.30	.19	
결혼형태	.15	.13	
직업유무	.12	.11	
상수	.96		

\*\*\*p < .001

5. 도시주부의 배경변인, 혼례행동에 따른 혼례만족

도시주부의 배경변인, 혼례행동이 혼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 중에는 가족의논빈도( $\beta=.21$ ), 자아긍정감( $\beta=.21$ ), 소득적정도( $\beta=.18$ ), 학력( $\beta=.12$ )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인 중에는 혼수( $\beta=.21$ )가 유일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3.6%였다. 즉 결혼당시 가족의논빈도 및 소득적정도가 높고, 자아긍정감이 높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혼례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혼수 행동을 합리적으로 할수록 혼례만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부가 혼례행동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혼수장만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느냐가 혼례만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임을 유추할 수 있어 주부들이 결혼전에 혼수장만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종 대중매체나 학교교육, 사회단체 및 정부기관 등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호응이 요구된다.

〈표 5〉 배경변인, 혼례행동에 따른 혼례만족

독립변인	종속변인 혼례만족		설명력과 유의도
	b	$\beta$	
가족의논빈도	.22	.21	Adjusted R <sup>2</sup> = .2355 F Ratio=18.80*** Durbin-Waston test=1.93
자아긍정감	.32	.21	
혼 수	.14	.21	
소득적정도	.19	.18	
학 력	.04	.12	
상 수	.05		

\*\*\*p < .001

6. 도시주부의 배경변인 · 혼례행동 · 혼례만족간의 인과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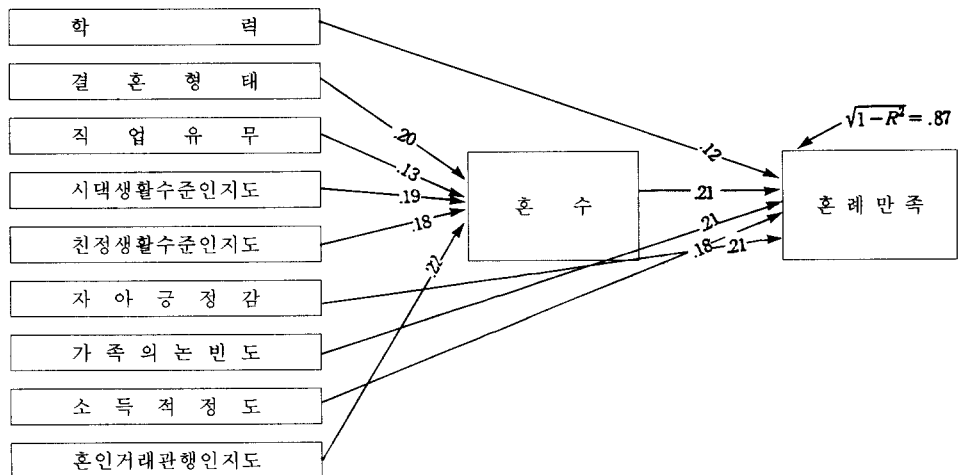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그림 2〉와 같은 인과관계를 구성했으며, 변인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과효과는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혼수( $\beta=.21$ ), 학력( $\beta=.12$ ), 자아긍정감( $\beta=.21$ ), 가족의논빈도( $\beta=.21$ ), 소득적정도( $\beta=.18$ )였다. 혼례만족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보면, 결혼형태, 직업유무는 혼수를 매개로 혼례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연애혼을 하고

〈표 6〉 인과효과

변인	총체적 효과*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혼 수	.199	.21	-	.210	-.011
학 력	.145	.12	-	.120	.025
자아긍정감	.318	.21	-	.210	.108
가족의논빈도	.357	.21	-	.210	.147
소득적정도	.290	.18	-	.180	.110
결혼형태	.174	-	.042	.042	.132
직업유무	.085	-	.027	.027	.058
시대생활수준인지도	.105	-	-.039	-.039	.144
친정생활수준인지도	.087	-	-.037	-.037	.124
혼인거래관행인지도	-.117	-	-.046	-.046	-.071

\*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결혼당시 취업한 주부는 혼수행동이 합리적임으로써 혼례만족이 높았다. 시대 및 친정생활수준인지도는 혼수를 매개로 혼례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시대와 친정생활수준인지도가 낮은 주부는 혼수행동이



〈그림 2〉 인과모형

합리적임으로써 혼례만족이 높았다. 환언하면 주부가 시대과 친정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혼수행동이 비합리적임으로써 혼례만족이 낮아짐을 의미하는데, 이는 혼수의 규모결정에 있어 실권자는 어머니들이라고 한 최경숙(1995)의 연구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의식해서 혼수준비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한국여성개발원(1986), 한국부인회(1988)의 조사결과를 지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혼인거래관행인지도는 혼수를 매개로 혼례만족에 부정 영향을 미쳤다. 즉 주부는 혼인거래관행인지도가 낮을수록 혼수행동이 합리적임으로써 혼례만족이 높았다. <그림 2>에서 나타났듯이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혼수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인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전체 혼례행동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신부측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혼수행동의 합리성을 매우 강하게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1) 도시주부는 혼례행동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으며 높은 혼례만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들이 자녀들의 혼수준비 등 결혼준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젊은층 도시주부들의 혼례에 있어서 상당히 밝은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2) 도시주부의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결혼형태와 직업유무로 나타났다. 즉 연애혼을 하고 결혼당시 취업한 주부일수록 혼례행동이 합리적이며 혼례만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연애결혼을 한 주부들이 중매혼을 한 주부들보다 결혼 준비과정 등 혼례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덜 받으며, 취업여성들의 경제적 능력이 자립성을 부여해 주어 혼례에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미혼남녀 및 결혼적령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결혼준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도시주부의 혼수에 대한 행동이 합리적일수록 혼례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혼례행동의 하위영역 중 혼수행동만이 혼례만족을 높일수 있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어 호화혼수를 지양하고 혼례건전화를 홍보할 수 있는 대중매체의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대부분 약혼식이나 결혼식 등은 규격화, 상업화되어 있어 전문예식장에서는 부대시설을 강요하고 바가지상혼을 씌우는 등 개인의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들을 철저히 단속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규제와 더불어 사회단체 등에서 결혼적령기 남녀들에 대한 소비자교육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실질적으로 혼수장만 등 결혼준비를 하는 것은 친정어머니들임을 알 수 있고, 신부측에서 결혼준비과정에서 시대생활수준을 의식하는 등 시대의 눈치를 보는 것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젊은층 도시주부들의 혼례행동이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혼례만족이 높음을 볼 때, 결혼당사자인 자녀들이 주체가 되어 혼수를 장만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혼례의 전 과정에서 주도권을 이양하고 자녀들이 의사결정권자가 되도록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자녀들을 결혼시킬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차원에서 계몽프로그램의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하여 몇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딸의 혼수장만 등에 있어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친정 어머니들과 결혼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시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혼례를 조사하여 부모와 자녀의 세대간의 비교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건전한 혼례와 불건전한 혼례를 치른 여러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이것들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저소득층의 경우는 중상류층의 혼례와는 상당히 다른 실정이므로 혼례에 대한 계층간의 비교연구도 요구되며, 특히 도시와 농촌간의 혼례행태도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지역간의 혼례 비교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1) 김정희(1983). “한국도시가족의 혼인비용지출현황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2) 김두현(1980). 한국가족제도 연구. 서울대출판부
- 3) 김명나(1989). “도시주부의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4) 김모란(1994). “한국사회의 혼인거래관행에 대한 연구-도시중산층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5) 김양희(1990). 가족관계학. 서울 : 수학사.
- 6) 김영주(1994). “Ritual Service Marketing에 관한 연구-혼례 service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7) 김옥희 외(1991). 생활예절. 서울 : 양서원.
- 8) 김혜선·한희선(1995). “배우자선택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 9) 박미금(1993). “부부의 경제생활만족도 비교분석”.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10) 박민자(1991). “도시 중간계층의 혼인거래관행에 관한 연구”. 이효재 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 11) 박숙자(1991). “도시 저소득층의 혼인양태”. 이효재 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 12) 박은령(1992). “고등학생의 자아긍정감과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 13) 박혜인(1988). “한국의 전통혼례 연구-서유부가 혼속을 중심으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14) \_\_\_\_\_(1991). “한국 전통혼례의 연속과 단절”. 이효재 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 15) 손승영(1995).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여성한국사회문화연구편. 사회문화연구소.
- 16) \_\_\_\_\_(1996). “혼례문화의 상업화와 가부장적 특성”. 한국가족학회 추계학술대회.
- 17) 손유미(1991). “서울거주 주부의 통과의례에 대한 의식과 의례절식의 이용실태에 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1.
- 18) 손현숙(1991). “도시주부의 자아긍정감과 의사결정공동참여가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 19) 안정남(1991). “현대 결혼의례의 의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 20) 양명숙(1996). “예비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 21) 옥선화·정민자(1992). 결혼과 가족. 서울 : 하우.
- 22) 유현주(1991). “미혼남성의 결혼의식 및 결혼비용 지출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 23) 이광자(1990.6). “좀 더 가난한 마음”. 조선일보 21240호.
- 24) 이기춘·조은정(1992). “도시 신혼기가계의 결혼비용과 신혼주거자금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 25) 이길표(1982). “가례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연구-혼·제례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26) 이길표·주영애(1989). “가정경영관과 혼례행례와의 관계연구”. 성신연구논문집 29.
- 27) 이명숙(1995). “도시 전업주부의 가치지향성·가정관리전략·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28) 이선영(1992). “혼인행사에 관한 의식과 행동에 대한 연구-서울시 거주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29) 이정우 외(1990). 결혼과 가족관계. 숙명여대출판부.
- 30) 이정우 외(1996). 생활예론. 숙명여대출판부.
- 31) 이정우·안동선(1989). “한국 기혼여성의 가정경영관과 커뮤니케이션·상호작용”. 생활과학연구지 3.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소.
- 32) 이정우·김명나(1993). “주부의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 행동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결혼식·제사·회갑연을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지 8.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소.
- 33) 이현송·배화옥(1996). “혼례문화의 문제점과 정

- 책과제-건전 혼례모델의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4) 이현송·공세권(1996). "배우자선택과정의 변화와 결정요인". 가족과 혼인문화. 한국가족학회 추계학술대회.
- 35) 이효재 외(1991).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 또하나의 문화.
- 36) 이행숙(1982).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의식과 혼비지출에 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37) 장은영(1990). "도시주부의 혼수관행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38) 장하경(1996). "한국 사회변동에 따른 혼례관행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 39) 정민자(1987). "배우자선택·결정에 미치는 요인 및 중요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 연구논문집 18 (자연과학·공학편) 제1호.
- 40) 정용선 외(1995). "혼수의 사회적 의미 및 혼수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사회교환이론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3(6)
- 41) 최경숙(1995). "결혼의례절차와 물질적 재화교환의 관행에 대한 연구-도시 중간계층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42) 최성애(1993). 혼수전쟁. 서울 : 청산.
- 43) 하상희(1994). "도시부부의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참여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44) 한경순(1986). "혼·상·제례 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45) 홍준숙(1987).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학위논문.
- 46) 황경애(1994). "혼례행례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 47) 소비자시대. 1990.3, 1994.5.
- 48) 조선일보. 1994.4.4, 중앙일보. 1996.3.20.
- 49)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0). 혼수에 관한 의식과 실태조사.
- 50) \_\_\_\_\_ (1993, 1996). 결혼비용 지출 실태 및 의식조사.
- 51) 한국가족학연구회(1993). 가족학. 서울 : 하우.
- 52) 한국부인회(1988). 혼례의식 조사결과.
- 53) 한국여성개발원(1986). 건전한 혼례혼수.
- 54) 이재(李緯). 사례편람(四禮便覽).
- 55) 예기(禮記).
- 56) 예절지도사회 역(譯), 주자가례(朱子家禮).
- 57) Sumarwan, U. & Hira, T.K.(1993). "The effects of perceived locus of control and perceived income adequacy on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of rural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s Issues 14(4).